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7월 2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24일(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7. 24일(화)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 자동차항공과 바이오나노과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담당과장	김대자 과장(044-203-4510) 박종원 과장(044-203-4321) 김선기 과장(044-203-4390) 이경호 과장(044-203-5360)	담 당 자	김종락 사무관(044-203-4515) 위승복 서기관(044-203-4321) 서성태 서기관(044-203-4391) 이기헌 사무관(044-203-5362)

산업부 장관, 신산업 육성 총력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약속

▸ 유관부처, 관련 기업과 함께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규제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월 24일(화)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 개요 】

- **일시/장소** : ’18. 7. 24(화) 15:00~17:00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 **참석자** : 수소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계 대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관 부처 및 기관 약 30여명
- **내용** : 신산업 분야의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유관 부처 및 기관과 산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사업화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해소

○ 이번 토론회는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를 돌파**하기 위하여, 유관부처와 관련 업계 대표 등 30여명이 모여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였다.

○ 또한 지난 16일에 있었던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산업부의 기업 총력지원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더욱 의미가 있다.

□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우버(Uber), 에어비엔비(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라는 자료를 인용하면서,

○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 산업부는 ❶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❷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❸건강관리서비스 신비즈니스, ❹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❺영농형 태양광, ❻분산전원 활용 신비즈니스 등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면서,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1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 산업부는 서울·울산('18), 5대 도시('19) 등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22년까지 수소버스 1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본격 보급에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는 수소 충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소생산・운송・운영 등 단계별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 먼저, 수소 생산 단계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내 개질기**(CNG 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 **설치를 허용**하고(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8.12), 운송 단계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반차 1대당 수소버스 8대분이던 용량을 20대분 용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운반차 용기용량(150→300L), 압력기준(35→45MPa) 상향(고압가스법 시행규칙, '19.3)

○ 또한, 수소 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장치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도 **이동식 충전소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고압가스법 특례고시, ‘18.9)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소충전 수요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임이다.

○ 아울러, 수소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수소가격을 분석, 산정**하는 등 민간의 자생적인 수소충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소 충전소 관련 규제현황 >



2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 활용

○ 산업부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20년까지 **40여개 병원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하여 5천만 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원의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활용*** 하는 방식으로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중인 바, 업계에서 건의한 **△가명정보 형태 활용**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 예) ‘㉮병원의 고혈압 약 처방비중은 A약 ○○%, B약 △△%이며 A약이 B약보다 신장질환 발생위험을 □□배 낮춤 등’과 같은 형태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음

○ 아울러, 향후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대상 병원**을 현재 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확대**하여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3 건강관리서비스 신비즈니스

○ 선진국에서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의료법 저촉 여부가 불분명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 예) 아이비엠(IBM) 왓슨(Watson: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사의 진단 보조), 시나(Cigna)의 건강관리 서비스(개인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을 건강군·위험군 등으로 구분, 맞춤형 건강관리)

○ 이에 산업부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간 구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며, △**20개 이상 실증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예) AI 기반 질병예측 서비스,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관리 서비스 등

4 병원의 기술개발 · 사업화

○ 국내 병원이 보유한 **다양한 임상 경험이 연구개발·사업화로** 이어진다면, 의료의 질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따라 산업부는 병원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는 한편**(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 △**병원-기업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사에 필요한 일조량의 초과분을 태양광발전에 활용**한다면, 농가소득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위해 올해까지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현 8년)을 **태양광 평균운영기간(20년)에 맞추어 연장**을 추진하고(농지법 시행령 등 개정),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영농형태양광을 포함할 계획이다.**

6 전기요금 절감을 도와주는 "분산전원 활용 신비즈니스"

○ 소비자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경우, 요금절감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

* 예) '12년부터 미국내 6천만호 가정·빌딩에서 전력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그린버튼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 및 요금 분석, 절감방안 컨설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스마트계량기(AMI) 부족, 복잡한 데이터 수집방법, 데이터 표준화 부재 등으로 국내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지 못했다.

○ 이에, △한전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 개정,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계획을 관계 부처의 협조 하에 철저히 이행하여, 신산업 육성에 실기(失期)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적극 설득**하는 등,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김종락 사무관(☎ 044-203-4515), 자동차항공과 위승복 서기관(☎ 044-203-4321), 바이오나노과 서성태 서기관(☎ 044-203-4391),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조우신 사무관(☎ 044-203-53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 개요**

□ 개최 목적

○ 신산업 분야의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유관 부처 및 기관과 산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사업화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해소

□ 행사 개요

○ **일 시** : '18.7.24(화), 15:00~17:00

○ **장 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국화룸(2F)

○ **참석자** : 총 30명 내외

- (산 업 부) 산업부장관, 산업정책실장, 정책기획관 등
- (관계부처) 총리실 및 규제 소관기관 공무원
- (업계대표) 각 분야별 업계 대표 등

□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05 (5')	**개회 및 기념촬영**	
15:05 ~ 15:10 (5')	**모두 말씀**	· 산업부장관
15:10 ~ 15:40 (30')	**신산업별 비즈니스 모델 및 핵심규제** (발제1) 수소차 ❶ 대중교통 수소버스로 전환 (발제2) 바이오헬스 ❷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❸ 건강관리서비스 新비즈니스 ❹ 연구중심병원 기술지주회사 (발제3) 에너지신산업 ❺ 영농형 태양광 ❻ 분산전원 활용 新비즈니스	 · 시스템산업정책관 · 시스템산업정책관 ·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기자단 퇴장)	
15:40 ~ 16:55 (75')	**토론** (수소차 → 바이오 → 에너지신산업 順)	· 전체 참석자
16:55 ~ 17:00 (5')	**마무리 말씀**	· 산업부장관

참고 2 **참석자 명단**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산업계 (20)	수소차 (6)	한국가스공사	정승일	사장
		현대자동차	박광식	부사장
		제이앤케이히터	김방희	대표
		광신기계공업	권환주	대표
		태광후지킨	김영호	대표
		지티씨	이원진	대표
	에너지신산업 (6)	한국수력원자력	오순록	본부장
		남동발전	김학빈	본부장
		(재)녹색에너지연구원	김형진	원장
		KT	김영명	단장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최종웅	대표
		파란에너지	김성철	대표
	바이오헬스 (8)	아주대의대	박래웅	교수
		고려대 안암병원	이상헌	교수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
		연세대의대	김소윤	교수
		눔 코리아	김영인	대표
		헬스맥스	이상호	대표
		셀바스AI	김경남	대표
		에임메드	이영준	대표
유관 부처 및 기관 (5)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관	여장권	국장
	국무총리실	규제기획과제과	한동희	과장
		산업통상정책과	윤현주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
	한국전력공사	-	김동섭	부사장
산업부 (6)		산업정책실	박건수	실장
		정책기획관	전윤종	국장
		산업정책관	박태성	국장
		산업기술정책관	이상훈	국장
		시스템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
		신재생에너지정책단	김현철	국장